

복리는 조금 복잡해요.

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고 매년 1%의 이자를 10년 동안 복리로 받는다고 해보죠.

첫해에는 100만 원의 1%인 1만 원을 이자로 줘요. 총 101만 원의 돈이 있어요.

두 번째 해에는 원금 100만 원의 1%인 만 원만 이자로 주는 게 아니에요. 원금 100만 원에 전년도에 받은 이자 1만 원까지 101만 원의 1%인 1만 1백 원을 이자로 주지요. 총 102만 1백 원이 있어요.

세 번째 해에는 원금 100만 원에 첫해에 받은 이자 1만 원, 두 번째 해에 받은 1만 1백 원까지 해서 102만 1백 원의 1%인 1만 201원을 이자로 줘요. 총 103만 301원이 있어요.

이걸 식으로 나타내보죠.

첫 해: $100\text{만원} + 100\text{만원} \times 0.01 = 100\text{만원}(1 + 0.01)$

두 번째 해: $100\text{만원}(1 + 0.01) + 100\text{만원}(1 + 0.01) \times 0.01 = 100\text{만원}(1 + 0.01)(1 + 0.01) = 100\text{만원}(1 + 0.01)^2$

세 번째 해: $100\text{만원}(1 + 0.01)^2 + 100\text{만원}(1 + 0.01)^2 \times 0.01 = 100\text{만원}(1 + 0.01)^2(1 + 0.01) = 100\text{만원}(1 + 0.01)^3$

n 번째 해: $100\text{만원}(1 + 0.01)^n$

복리는 이렇게 단리와 다르게 이자에도 이자를 쳐줘요. 그래서 단리보다 계산도 복잡하고 마지막에 받는 돈도 더 많이 받죠.

‘예금풍차돌리기’라고 들어 보았나요?

매달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1년이면 12개의 예금에 가입하게 되겠지요. 이제 1년 뒤면 매달 1년 만기 예금을 찾게 됩니다. 이때가 중요한데요,

은행에 묵혀둔 예금을 이자와 함께 찾았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. 은행에서는 단리 이자를 주지만, 나는 원금에 (단리)이자를 다시 예금함으로써 원금+이자에 이자가 붙는... 실질적인 복리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

매달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렵다면,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,

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재테크 초년생이라면 처음에는 1년 만기 적금으로 시작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예금으로 돌리고 또 다시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면 다시 예금으로 돌리는 식으로 천천히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복리라는 개념은 투자에도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.

예컨대 펀드나 주식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날 경우 원금과 수익금을 합한 금액을 다시 투자하여 수익을 낸다면 이또한 복리 투자입니다. 물론 펀드나 주식 투자는 손실의 위험성도 있지만,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라면 펀드나 주식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위 그래프에서 우리는 단리 보다는 복리를 추구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게 재산을 불리는 지름길임을 확인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, 복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받은 후 연체를 하게 되면 그 이자 역시 복리로 늘어 난다는 사실입니다.